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中等教育擴充問題 ——普通教育中心이可——

一

總督府에서는 中等教育擴充十個年計劃案을 企畫하야 明年度부터 實施할 作定이라고 한다. 勿論, 此案은 亦是 明年度부터 實施될 第二次 初等教育擴充案과 關聯되는것이며, 또한 中等教育의 擴充에 따라서 京城大學의 學部增設도 此를 考慮한다는것이니까 敎育의 體制로는 調和잇는 均衡上 其宜를 得한 것이라고 할것이다. 中等教育擴充案에 伴하는 十個年 總豫算案은 國庫費 支出과 地方費負擔을 合하야 總額三千萬圓으로서 每一年의 支出額은 僅僅三百萬圓에 不過한데 이 一事에 잇서서는 처음 幾年間은 모르나 今後 四五年以後부터의 將來를 생각할때에는 (一)朝鮮內의 人口增加로 보나 (二)向學熱의 漲昇上으로보나 또는 (三)貨幣價値의 漲降의 勢로 보나 如此僅少한額은 實로 紅爐點雪의 嫌을 免치 못할가 두려워 하는바이다.

二

그러나 우리가 本欄에 잇서서 問題로 삼고저 하는것은 豫算額의 多寡보다도 中等教育擴充案의 內容에 關한것이다. 擴充內容의 具體案에 잇서서는 中等教育調査委員會에서 目下 立案中에 잇다니까 詳細한 內容은 아직 알 길이 업스나 다만 한가지 傳하는바에 依하면 今番 擴充의 中心은 實業學校增設에 둔다는바 이것이 萬若 事實이라고하면 이것은 크게 時代의 要求와 어그러진다는 一點을 指摘하고저하는바이다. 受業期限 六年의 初等教育만으로는 社會國家가 要求하는 國民敎育을 授與할수 업스리만치 今日의 人類文明은 複雜化햇다. 事實이 이러한지라, 今日 主要列國의 敎育政策은 初等程度의 義務敎育年限을 延長하며 一層 나아가서는 中等教育까지 此를 義務敎育制로 改正하려는 氣勢까지 보이고잇다. 故로 첫재 이 一點으로만 보아도 中等教育은 實業敎育主義를 取치 아니하고 亦是, 社會國家의 一員으로서의 必須한 普通敎育을 授與하는 主義로 할수박게 업는것이다.

三

더구나 이것을 現下의 世界情勢로 본다면 今日의 社會國家는 그어느 나라, 어느 社會임을 勿論하고 그나라, 그社會가 實業上으로 본 一技一藝에 勤能한 者를 얼마나 가젓느냐? 하는것은 問題가 아니요, 科學上으로 본 一技一藝에 勤能한 者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데 依하야 優劣勝負가 判斷되는 時代다. 이런 點을 考慮하야 大局을 살핀다면 苟且한 近視眼的小乘策에 拘泥할것이 아니라, 宜히 大局에 눈을 던저 가지고 大乘的見地下에서의 百年大計를 세울것이오, 따라서 問題의 中等教育에 잇서서도 實業敎育中心主義니 무어니 하는것은 이것을 抛棄해버리고 普通敎育中心主義로 가기로 하는것이 가장 上策일것을 主張하는 同時에 이런 主義下에서 私立學校의 增設을 指導援勵하야 不及就學을 擴充해야 될것이라는 것을 强調해 두는바이다.

首相의 大演習陪觀 對中問題 때문에 中止乎

兩國關係、重大分岐點에 到達 但好轉되면 北海道行

【東京電話同盟】廣田首相은 中國問題의 重大化에 鑑하야 大演習陪觀을 爲한 北海道行을 延期하고 그後의 情勢를 注視하고 잇던바 中國側에 依然反省의 비치 업고 兩國關係는 重大한 分岐點에 達하야 日本으로서도 最後의 强硬한 決意를 하고 萬遺憾업는 對策을 取할 事態에 이르러 緊迫의 度는 益益增加하야 現在 情勢로는 好轉의 徵兆가 보이지안흐므로 結局廣田首相은 大演習陪觀을 中止하고 東京에 잇서 有田外相 永野海相과 함께 對中問題解決에 當하기로 되는 模樣이다

【東京電話同盟】廣田首相은 緊迫한 日中關係에 鑑하야 二十八日 東京出發 大演習陪觀의 豫定을 延期하고 情勢에 應하야 臨機處置에 나가기로 決定하고 二十九日 閣議에 臨하엿다 然而席上 有田外相의 報告에 依하면 蔣介石氏는 아즉 南京에 歸來할는지 現地로는 何等 正式報告가 업서서 交涉前途는 依然樂觀을 不許하는데 各閣僚가 懇談을 거듭한 結果 좀더 在京하야 情勢推移를 注視하기를 決定하엿다 그러나 首相으로서는 될수잇는대로 大演習을 陪觀하고시픈 意見을 가지고잇슴으로 事態가 好轉하야 首相의 離京이 된다면 六日의 觀兵式及 賜饌에 參加할수잇도록 四日頃出發 北海道에 向하기로할 模樣이다

首、外、陸、海大臣에 强硬決議打電 青島日本記者團

【青島廿九日發同盟】青島日本記者團은 二十九日朝臨時總會를 開催하고 左와如한 決議를 廣田首相及外、陸、海各關係大臣에 打電하엿다

決議

停頓된 日中關係의 打開는 結局「斷」의 一字가 잇슬뿐이다 現下在中居留民의 不安을 坐視할수업서 斷乎政府의 決斷을促함

不干涉委員會開會

【倫敦二十八日發同盟】西班牙內亂不干涉委員會는 二十八日午後 英國外務省에서 開會 프리마스卿 司會下에 具體案에 關하야 審議를 繼續하엿는데 葡萄牙公使 코르데이로氏도 本國政府의 訓令에 依하야 처음으로 議事에 參加하엿다 同代表는 分科委員에 指名되엿다

馬克도 平價切下?

獨逸國立銀行理事會開催코 法平價切下對策協議

【伯林廿八日發同盟】獨逸經濟相 사하트博士는 法貨의 平價切下對策을 檢討키 爲하야 三十日午後四時 國立銀行理事會를 開催키로 決定하얏다. 라이하트大藏次官 其他 官邊은 馬克切下의 意圖업는 旨를 强調하고잇는데 財界側은 依然히 馬克貨가 切下될는지도 모르겟다는 觀測을 버리지안코 結局 理事會까지에 金本位各國의 方策이 確定되므로 獨逸政府는 情勢의 推移를보고 最後的對策을 決定할것으로 豫想되고잇다

佛新通貨法案討議

【巴里二十七日發同盟】佛蘭西下院은 二十七日午後九時 緊急會議를 開催 下院財政委員會로부터 附된 新通貨法案을 組上에노코 審議를 開始하엿는데 急進社會黨代表 슈미트氏가 新通貨法案報告를 提出 下院財政委員會에서 審議經過를 報告한後 一般討議에 들어가 切下反對「金先鋒」元藏相 레이노-氏以下 各黨代表十五名은 이미 發言을 通告하야 政府는 블룸首相을 筆頭로 藏相 오리올氏 經濟相 스피낙스氏가 交交應酬할 豫定인데 急進社會黨의 新法案에 對하야는 社會黨、急進社會黨의 支持가잇서 이에 對하야 中央及 右翼各派의 反對가 豫想되고 다시 新通貨法에 附隨한 經濟的社會的對策 就中 生活指數上昇을 考慮하고 官吏俸給引上案에 對하야서는 各方面이 모다 相當한 反對가잇슬模樣인데 結局討議終了後 表決에 附하기에는 夜半이 될것이다

土耳其의 通貨 磅貨와 聯携

【이스탐불二十八日發同盟】土耳其政府는 프랑貨의 切下에 鑑하야 法定通貨 비아스타를 磅貨와 聯携시길것을 決定하엿다 政府에서 調査 研究中이엇더니 最近大體가 終了를보게 되엿다

關東軍幕僚會議 北中現狀을 詳細報告

【新京廿九日發同盟】橋本中國駐屯軍參謀長을 마지한 關東軍에서는 二十九日午前九時로부터 軍司令部會議室에서 高級幕僚會議를 開催하엿다 關東軍으로부터 今村參謀副長을 비롯하야 坂西 武藤 竹下各課長出席 橋本參謀長으로부터 北中現狀에 對하야 詳細한 報告가잇섯고 關東軍으로부터 그 對策을 提示說明하야 兩者間 意見交換을하고 中國駐屯軍 關東軍間에 一層緊密한 連絡에 對하야 協議를 重하엿다

軍部의 行革方針에 政府態度消極的

省의 廢合에도 相當히 强硬한 反對意見잇서 閣內不統一을 暴露乎

【東京電話同盟】行政機構改革에 關한 軍部의 方針은

一、綜合國策의 企劃樹立機關

一、無任所大臣設置

一、省의 廢合整理

의 三原則을 根本方針으로한것인데 이마 廣田首相에 文書로서 提出하여잇는 行政機構改革에 對한 政府首腦部態度는 매우 消極的이어서

一、國策遂行上 二省以上에 關聯을가진 機關의 對立摩擦을 緩和하기爲하야 新機關設置、(例컨대 大貿易局을 外局으로 設置하는等)

一、內閣直屬諸機關의 整理改善 (例컨대 法制局과 調査局、賞勳局과 恩給局、資源局과 統計局을 統合하야 事務의 連絡統制簡易化를 圖하는等)

等에 對하야는 多少考慮하고잇는 模樣인데 省의 廢合整理에 關하여는 閣內에도 相當히 强硬한 反對意見이 잇서서 實行上 不可能인 것, 省의 廢合이어도 所謂庶政一新을 期待하기는 困難하다는 理由로 反對하고잇서 大演習終了後 行政機構改革問題가 表面化한다하면 當然 閣內에 意見對立이 露出되고 그 取扱如何에 依하여는 閣內不統一을 暴露하고 따라서 內閣運命에 關한 重大政治問題로 擴大될 憂慮가 잇는데 政府首腦部는 그 取扱에 對하야 極度로 苦慮하고 本問題에 對한 軍部兩相의 主張이 어느程度의 熱意를 가지고 잇는가하야 今後의 態度를 기다리고잇다

行政機構改革에 依한 交通政策의 統一 支障이 만허 前途悲觀

【東京電話同盟】行政機構改革은 庶政一新의 最終目標가되여 大演習終了後는 勿論 表面化되야 政治問題化될것이므로 內閣制度改革은 至難한問題인것만큼 政府로서도 斷乎한決意로 結局各省의 廢合及 省의新設을 中心으로하는 行政機構再檢討가 重要眼目이 될것으로 推測되는데 就中 陸軍省이 强調하는바는 廣義의國防充實과 行政機構改革을 不可分으로 보고잇는點이고 國防强化、產業進展에 備한 行政組織의 整理改善이 그目的하는것이므로 產業交通關係의 各省機構改革이 具體的論戰의 對象으로 될것이다 特히 交通에 對하야서는 單純히 軍事輸送上 重要한 役割을 가질뿐아니라 平時에는 產業經濟에 對한 關係가 實로 그根幹이 됨으로 現下 日本의 交通警備 重要性은 일즉 齋藤內閣當時 荒木陸相提唱에 依하야 交通審議會設置를 본것으로도 明白하다 그後 交通問題解決에 何等 볼만한것이 업고 道路 港灣 船舶 自動車及 航空機等을 一貫한 交通政策確立은 多年 政府懸案이되여잇스면서도 監督官廳의 對立과 割據主義의 弊害를 如實히 示하고 그間 有機的連絡을 缺한 現狀으로 今回 行政機構改革에 當하여서 第一 交通行政의 整理統一이 論議될 것이라고하는것도 至當할것이라 觀測된다 그리고 이에 對한 關係官廳態度를 觀察컨대 모다 積極的熱意를 缺하야 特히 各省事務當局에서 依然 傳統的監督權喪失 營業事務의 縮少를 極力反對하고잇는데 內務省所管道路 港灣 軌道及 自動車事業 遞信省所管船舶航空機 鐵道省所管鐵道 軌道 自動車運輸事業 各交通關係行政監督事務를 如何히 統一할가는 매우 疑問視된다. 特히 此를 交通省으로 하는때에는 廣汎한 各行政部門을 一行政長官이 監督할것은 不可能함으로 今回 行政機構改革은 各交通部門에 對하야 前途가 가장 支障이 만허서 廣田首相이 斷乎한 決意가 업는限 政府로서 이를 着手하는것은 不可能이아닌가 悲觀되고잇다

蔣介石氏南京歸還

【南京二十九日發同盟】廣東에서 北上한 蔣介石氏는 昨夜는 九江에 一泊 二十九日午前飛行機로 九江을 出發하야 午後三時四十分 南京光華門軍用飛行場에 到着直時 自動車로 軍官學校內의 官邸에 入하엿다

行政院首腦部 對日策을 協議

【上海二十八日發同盟】中國側에서는 吳鐵城、王世杰氏等이 廣東에서 蔣介石氏와 會見 歸京한 以來 連日行政院首腦者會議를 開하고 對日問題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繼續하고잇는데 今日 川越大使와 高宗武氏가 會見한結果를 基礎로 二十九日行政院會議에서 다시 討議를 行하야 具體的方針을 決定한後에 蔣介石氏의 決裁를 經由하야 日本側에 어떠한 意志表示를 하야올것이라 推測된다 따라서 日中交涉의 歸趨를 打診하기까지는 四、五日을 要할 模樣이라한다

貴革問題를 爲하야 研究會特別委員會

【東京電話同盟】貴族院改革에 關하야 政府는 十月中旬 調査會를 設置하고 內閣調查局案을 審議하기로 되엇는데 政府의 態度를 靜觀하고잇던 貴族院研究會는 近近政務審查部에 同問題에 關한 特別委員會를 設置하고 政府의 調查와 併行하야 具體的研究에 着手하기로 되엿다 또 公正會에서는 今春來 貴族院及 衆議院에 關한 制度改訂 委員會

西班牙動亂畫報 上은 叛亂軍이 火炎衝天한 이룬市에 入城하는光景 下는 入城한 叛軍의 一隊가 아즉까지 歸順치안흔 市民 義勇軍들의 潛伏한 民家를襲擊하고잇는光景

南朝鮮風水害對策 應急處置費決定

爲先二百六十萬圓支出決定

【東京電話同盟】本年七月下旬및 八月中旬부터 下旬에 亘하야 南朝鮮에 襲來한 大暴風雨는 人畜의 死傷 家屋의 流失 船舶의 沈沒破壞 農作耕地道路堤防 橋梁鐵道電信等에 激甚한 被害를 與하야 被害總額約一億圓이나되여 總督府始政以來의 大被害로 總督府는 爲先 當該知事를 人命救助 水害地域의 救濟等에 努力케하는 一方 水害復舊對策 恒久的風水害對策方法에 對하야는 臨時災害對策委員會를 設하야 善處하고잇는 狀態인데 應急處置로서 糧食飢饉을 救하야 一時的緩和策을 講하는同時에 道路河川의 修築堤防修築等工事에 從事케하야 勞銀을 散布하야써 被害民의 安定救濟를 企圖키로되여 右緊急支出에 關하야 過般來總督府、拓務、大藏三省間에 折衝中이든바 爲先被害가 甚大한 京畿道以南의 七道에 對하야 今回總督府第二豫備金 全額二百萬圓과 總督府特別會計剩餘金 六十萬圓 合計 二百六十萬圓을 支出하기로 廿九日 決定되엿다

和蘭新通貨法決定

【海牙二十八日發同盟】和蘭政府는 二十八日午前 緊急閣議를 開催하고, 코라인首相司會下에 프랑貨 平價切下에 對處할 方策을 審議한 結果 二十九日 新通貨法을 議會에 提出하기로 決定、다시 法案內容에 關하야 檢討를 加하엿다 法案 內容은 아즉 發表되지아니하엿스나 和蘭政府는 英國政府의 管理通貨政策을 重要視하고 爲替平衡資金을 設定하야 國際金融界에 對處할方策이 巧妙하 新이라고 말한다. 갈다-價의 切下로 價値를 確定치안코 金의 水準落着을 기다린다고 述하엿스며 其他政府當局도 引致치 안흘것을 確言하고잇다

不干涉委員會에 葡政府參加決定

【쥬네브二十八日發同盟】이든英國外相은 쥬네브府에 進出한以來 葡萄牙代表가 西班牙內亂不干涉協定調整委員會에 參加하도록 葡萄牙外相 몬데이로氏와 折衝에 努力하고잇던바 二十八日兩者의 意見이 一致되어 葡萄政府는 即時同委員會에 參加하기로 決定하엿다

兩民族抗爭再惡化

【倫敦二十八日發同盟】팔레스타인地方에서 猶太人과 亞剌比亞人의 反目抗爭은 그後兩次激化하야 最近數日間에 形勢는 極히 險惡化하엿스므로 英國政府는 二十九日同地方一帶에 戒嚴令을 施行하기로 決定하엿다

獨無任所相헤스氏 叛軍에 祝電發送

【뮌헨二十八日發同盟】獨逸無任所相 헤스氏는 二十八日 西班牙叛軍南軍이 알카사르市를 奪回하엿다는 情報를 接하고 直時叛軍南軍에 對하야 다음과갓흔 祝電을 發하얏다 余는 나치스全黨員을 代表하야 叛軍南軍의 알카사르市奪回成功에 對하야 衷心으로 祝意를 表明한다

新通貨法案 佛下院을通過

【巴里二十九日發同盟】佛蘭西下院은 二十九日續開되야 新通貨法案을 審議한結果 三百五十票對二百二十一票로써 全文二十五條를 可決하얏다

夕刊後市況 廿九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七一六〇 (不變)

鐘新 一七三九〇 (不變)

日產 八二三〇 (一〇高)

東新 一三七〇〇 (不變)

◆滿洲 先系 後引◆

當限 七二四〇〇 先限 七三三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一 先限 五九四〇

時事漫畫 = 世界가 다 亂時代인데 너만이 갓 ... 힘이 잇드란말인가

早稻田大學 校外生募集

十月一日을期하야 獨學青年을爲하야 講義錄에依한 校外敎育을始作한다

讀者는모다本大學의校外生으로서待遇함(通學不要)。
小學卒業의讀書力만잇스면누구나理解할수잇게썻다
學科의質問과身上相議에도應하고各種檢定試驗等指導를行하고
一日一時間이나二時間式일餘暇에工夫하면充分한實力을엇는다
學費月一圓內外로修了後는特別考查를지나本大學專門部에入學할수도잇다
詳細는內容見本에依하야아시라

中等學校程度
中學講義 一月一圓 前後期各一ケ年
商業講義 一月一圓 一ケ年
高等女學講義 一月一圓 一ケ年
電氣工學豫備講義 一月一圓 一ケ年

專門學校程度
政治經濟講義 一月一圓二十錢 一ケ年半
法律講義 一月一圓二十錢 一ケ年半
文學講義 一月一圓二十錢 一ケ年
建築講義 一月一圓三十錢 一ケ年半
電氣工學講義 一月一圓三十錢 一ケ年半

內容見本 見本은葉書에반드시希望하시는講義錄을써서申込할것

申込所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一二二 電話牛込五四五

旱害地咸北六郡 國稅免除를歎願

各郡廳에殺到、實情을陳情

稅務監督局도調査에着手

【咸興】 금년봄에 근이개월이나 계속한 대한발(大旱魃)로、인하야 함남도중에서도 천수답(天水畓)이 가장만흔 정평(定平)·영흥(永興)·고원(高原)·안변(安邊)·문천(文川)·홍원(洪原)·북청(北靑)등 륙개군에는 이앙불능으로 전허폐답(廢畓)되고 만여정보에달하며 그중에 사천정보는 대두(大豆)교맥(蕎麥)등으로 대작(代作)하얏스나 그것조차 림우(霖雨)로 인하야 전멸되야 이중、삼중의 막대한 손해를 밧고잇다。 그리하야 피해농가 삼천여호는 벌서부터 식량(食糧)의 결핍을 예상하고 과동(過冬)을 념려하야고잇는형편이므로 도저히 지세(地稅)도 도비부가세(附加稅)를 지불할수업다고 그를 면제(免除)하야달라는 탄원(嘆願)이 련일 각군당국에 살도(殺到)한다고하는데 함흥세무감독국(稅務監督局)에서도 심각함을 알고서 이미 그면세구역조사를 시작하엿스며 도(道)당국에서도 국세면제답(畓)에 대하야서는 부가세도 면제하겟다고하는데 과연 조사의 결과 어느정도의 면세를 보게될는지가 주목된다。

順化院에入院햇든 赤痢患者또脫走

亦是西大門署의賭博嫌疑者

이십구일오후여섯시쯤하야 부내옥인정(玉仁町)순화병원에서는 이날오전여덜시쯤에 부내서대문경찰서류치장에서데려온 김용수(金溶秀)(三〇)라는 적리환자가 또 감시원의눈을피하야 어데로도망하엿슴으로 그병원에서는 곳소관종로경찰서에통지하야 그의행방을엄탐중인데 그는도박혐의로 서대문서에 류치중에 발병하야 그병원으로 넘어온것이다· 지난 이십사일에도 적리병으로 서대문서류치장에서 데려다가 입원식힌 절도용의자한명이 다러난 후 아즉 그의행방조차 알지못하든중에 또똑가튼 탈주사건이 발생하엿슴으로 관계당국은 크게랑패하야 그대책을 연구중이라한다

梨花女高寄宿舍에 赤痢患者가發生

診察結果判明되자消毒斷行

부내정동정(貞洞町)리화녀자고등보통학교 긔숙사생도 리정수(李貞洙)(一七)는 지난이십칠일부터 병이나서 신음하든바 이십구일 세부란스병원에서 진찰을 바든결과 적리(赤痢)인것이 판명되엿슴으로 이통지를바든 학교당국과및 소관서대문경찰서위생계에서는 곳긔숙사전부에 소독을하여엿다한다

劇研究會에서 春香傳上演

조선고전문학의 정수 춘향전(春香傳)을 류치진(柳致眞)씨의 각색으로 연극화하여 극예술연구회(劇藝術研究會)에서 상연한다함은 괴보한바어니와 제일일인 이십구일밤에는 정각전부터 모혀든 군중으로 만장성황리에 개막하여 그농난한 연긔와향토적 정서에 일반관중은 끗업는 감격을 바덧다는데 추석 노리에 나오일반 관중의 편의를 도하고저 삼십일은 낫한시부터 「마티네」로 개연한다고하며 특히낫 입장료는 사십전 균일이라한다 그리고 밤은 여섯시반부터 개연한다는데 입장료는 일반오십전 학생사십전이라하며 조파독자에게는 각각 십전씩할인한다고한다 조파독자할인권은 조파시월호독자에 첨부되엿스므로 만히 리용하기를바란다고

鐵道事故防止會 沿線에結成促進

철도국에서는 철도사고방지에 대하야 만흔활동을 하여왓스나 의연히 사고가 자조 나므로그 대책을 강구하고 잇는터인데경부선(京釜線)약목(若木)구미(龜尾)사이의 일부락이 소화칠년이래 철도사고방지회를 맨드러서 상당한 성적을 내고잇스므로요지음에 이것을 표창하고 한편으로 이러한가 사고방지에유효함으로 각철도사무소에 대하야 연선(沿線)부락에 자발적으로 사고방지회를 결성시키도록 하야교통도덕을 보급시키고 사고절멸을 도모하라고 통첩하엿다

黃昏의大路上에서 女子끼안고"키쓰"

술깨여보니東大門署留置場

이십팔일저녁일곱시사십분쯤되여 아즉날이채 어둡기도전에 시내동소문안 동성상업학교(東星商業學校)아페서 "빠쓰"기들우는사람들의 눈도살피지안코 동반하든 절믄녀자의몸을 껴안코 입을맛추는등 란잡한행동을하다가 재지하는경관에게 도리혀폭언을하다가 취한술이깨여보니 동대문서류치장속에 들어잇는것을 알게된 "에로"의사가잇다 그는시내 종로이정목칠십이번지에서 개업하고잇는 의사리불출(특히밀봉을김홍)(三一)로 녀자는성북정(城北町)백팔십팔번지의일호김불미(金不美)(假名)(二一)이라한다

시집간딸 사패보다 마저죽은그아비

가난살이 가엽서 데려오랴하매 查頓一族이毆打致死

【扶安】 귀여운딸을 잘못시집보내고서 그뒤너무심한 고생사리하는것을 볼수업다하야도로데려오려다가 사돈네의 작당구타한 에드되여 마저죽은가여운아버지가잇다 그자세한 내용인즉 아래와갓다

부안군부령면서외리(扶安郡扶寧面西外里)에사는 하재오(河在吾)(五〇)는 그큰딸 하충녀(河忠女)(一七)를 김제군백산면(金堤郡白山面)에잇는이숙되는김모(金某)의 알구진감언리설에 사위될자의 가품과 선도보지안코 이숙의말대로 김제군 백산면부곡리(金堤郡白山面富谷里)리창원(李昌元)의 장남 동필(李東弼)(二七)에게로 시집을 보내엿섯다 그런데그후 알고보니 사위되는자의 인품도인품이려니와 가세가말할수업시 가난하여 귀여운딸의 고생사리가 더할나위가업고 더욱히사돈네의 일상행동들이 고약하야 결혼하기전이숙의말은 순전히 계획적인행동으로서 딸을 그대로 두엇다가는 엇더한 경우를당할지몰음으로 로수차딸을 데려올여하엿스나그들이 청종치 안햇섯다한다 그래서 지난음륙월이십팔일에 하재오가 직접사돈네집을가서 그들의 그짓말한것과 불직한 평소의 행동을 질책하고서 딸을 데리고 오려한바 사돈되는 리동필이는 린근친척과 동네사람들을 다수 끌어모아서 전기하재오를 무수히련려구타하고 더욱히 가진위협을하며 혼인게에 날인하라고 하엿다한다 그런데 하재오는 자기딸의일평생의 운명을 좌우할 혼인게에는 절대로 날인 못하겟다고끗까지 버티엿든바 그들은 닥치는대로 구타함으로 하재오는 겨우 목숨만 살아서 길분밤에산길로 도망하여 산에서 쓸어저정신을일코 그밤을새우고 그이튿날 그곳을지나는 초동에게 구원을바더 들것에몸을 실리워자기집에 도라와서 훨여통심을하다가 드듸여 지난이십삼일전에 숨녀를부르면서 죽어버렷다한다 이를알게된 경찰에서는 지난이십사일에 그시체를 부검케하엿스며 리동필등은 김제 경찰서에서 방금 엄중취조를 하는중이라한다 그런데 하재오가 죽어서도까지 충녀는 친가에 도라오지못하고 잇다는데 딸되는충녀는 감금상태에 잇스므로 직까지도 자긔아부지가 죽엇는지 살엇는지도 모르리라하며 일지방은 리동필등의 간악무도함을 타매하야마지안는다한다

宿客專門窃盜

이려관에서 저려관으로 돌아다니며 나그네의 주머니를 터는 도적=철원(鐵原)출생의 전과일범 김몽장(金夢將)(二三)이란 절도범이 방금 시내 종로서 사법계에 붓잡혀서 엄중한 취조를 밧고 잇는데 그는 작년시월부터 시내 각려관을 돌아다니면서 동숙객의 금품을 전문으로 도적하던자로서 지난 칠월이십삼일 시내 관철정(貫鐵町)이백일번지 동아(東亞)려관에서 삼척(三陟)에서 올라온 리필동(李弼東)(三二)이란 사람에게서 현금사백원을 적도한것을 비롯하야 전후삼십여건에 그피해가 삼천여원에달한다고한다

"쇠먹는불가살이"

二萬餘斤을各處서窃盜

쇠만 먹는 「불가살이」가 경찰에 붓잡혓다=지난 이십구일 부내룡산서원이 도화정(桃花町)이백십번지 한성준(韓成俊)(二七)이라는자가 일상신분에 지나친 생활을 하고잇다는말을 엿듯고 붓잡어다가 문초한결과 이자는 전과를 일곱번이나 가진 무서운사나이로 지난봄에 형무소를 나온이래 다시도적질로 떠도라다니다가 지난십륙일 오전다섯시쯤되여 한강(漢江)인도교공사장에서 철근(鐵筋)륙십관어치를 훔처서 팔어먹은 외에 철도회관(鐵道會館)건축장、성대(城大)건축장등 큼직큼직한 일터로도라다니면서 대담하게도 구루마를 현장에 갓다노코는 닥치는대로 철재만 훔처다가 고물상 철공소등에 헐하게 팔어온터라인데 그철의무게가 약이만근에 그갑시 천여원이라한다

輯安縣一帶에散在한 萬餘基古墳部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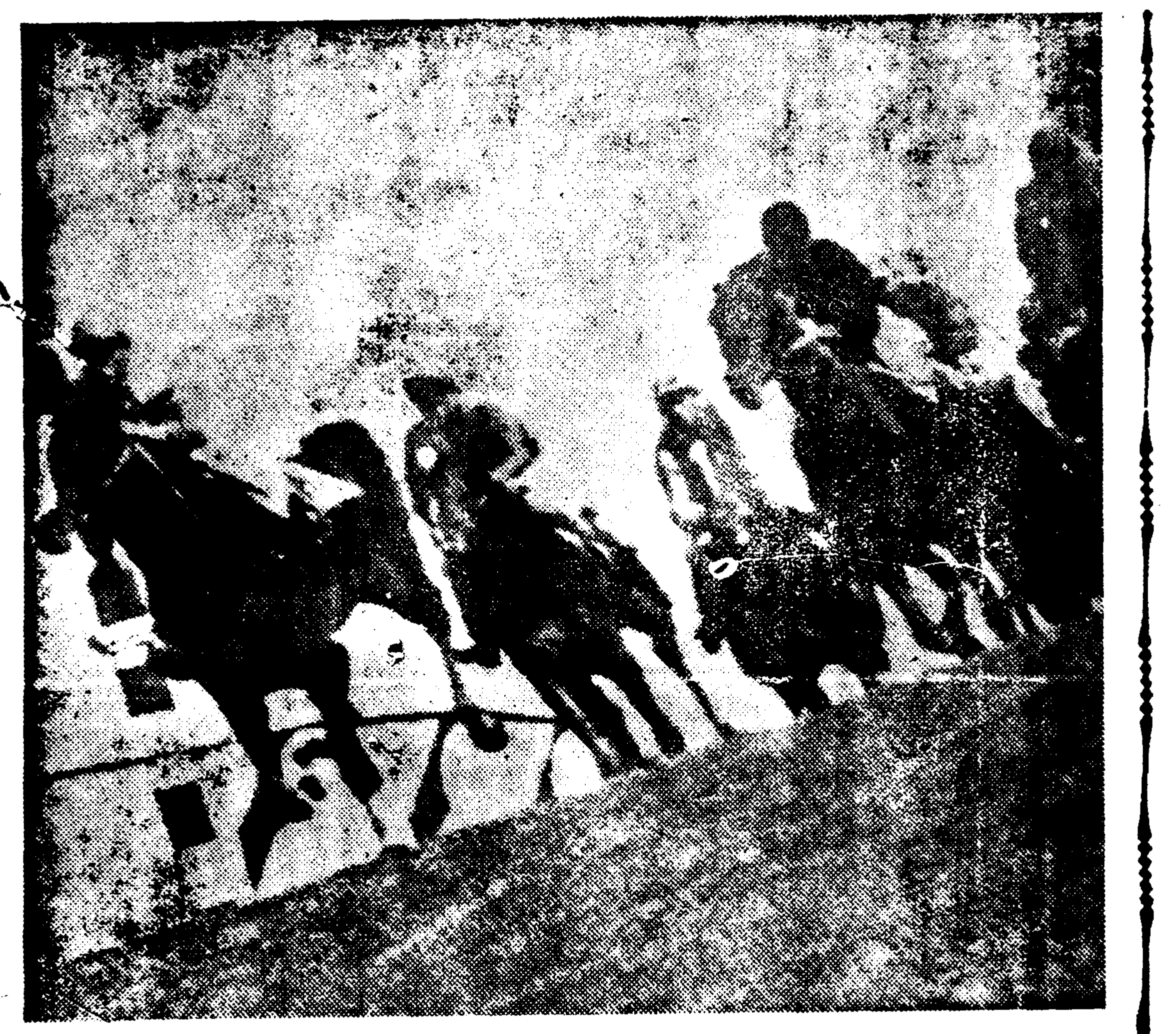
武裝軍隊護衛로調査되는 高句麗의古文化

【平壤】 평북만포진(平北滿浦鎭) 대안인 즙안현통구(輯安縣通溝) 부근에산재해잇는 고구려고분(高句麗古墳)은 일만여긔에달하여 고구려시대의 호화로웟든 자최를 상상케하거니와 동대(東大) 경대(京大) 고고학연구실의 손으로 전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되여 경대의 원전(原田) 박사、매원(梅原) 조교수、동대의 지내(池內)박사 삼산(三山) 조교수등이 소천(小泉)평양관장과 합세하여 이십팔일 오전여섯시오십분 평양을 출발하게되엿다 그런데 이일대에는 비적의출몰이 만흔 장소인만큼 군대호위하에서 일주일동안에 궁하여고구려고분과 성지(城址)를 조사하기로 되엿다

取調에따라서는 斷然閉鎖도不辭

人之道教彈壓態度強硬

「히도노미찌」(人之道)교단교조 어목덕일(御木德一)에대한 고소사건은 내무성에서 사교(邪敎)의 철저적규명에까지 나아가라는형세를보이며 이십구일 본성의 궁긔(宮崎)보안과장은 항박(杭迫)대판부특고과장과 긴밀한 련락을취하야 취조의전행상황을 청취하고잇다 문제의확대는 교조개인으로부터 교단전체에까지 확대될뜻하다 만약 대판부(大阪府)에잇는 그본부에대하야 풍속교란이 심한때에는 대판부지사를통하야 단호하게 본부교회의 폐쇄까지라도 불사할방침인데대본교(大本敎)의 불경(不敬)사건과는달라서 문제가 교의전반과 포교방침등과는 관계가업는 경우에는 교단전체의 해산까지에는 나가지안홀모양이다



싱글벙글그얼골에 忽然！金風이蕭瑟

"飛馬"의가을篇

천고마비(天高馬肥)! 이말은 가을을 축복하는인간들의 주문(呪文)이다。 봄철은 업는사람들에게 궁춘(窮春)이되고 잇는사람들에게는춘곤(春困)이부러다녀 그리 탐탐스럽지못하고 여름은 너나업시초열지옥에 허덕이는판이라생각만해도 지긋지긋하것마는 금풍을 타고온 가을철이들자칩도 덜도안흔날세에 오곡은 익어져 원한가을 배부른가을!하필 말만살이찔철이리요—

그러나 녜로 부터 하늘은 놉고말이 살찐다는 가을 ……

가을의 단벌 표정 이라고 할만한 살찐 말을 구경하고저 긔자는 동대문밧 경마장으로 향하엿다。

▼……▲

아닌게아니라 살찐말들의 「언파레이드」다。성숙한 처녀의 뒷태도처럼 미끈미끈한놈。령악한 지주(地主)의 목덜미가티 기름이번지레하게 흐르는놈。양복점 간판에 그려논 인형처럼 쑥쑥 빠아난놈들이울속에 몰려섯다。

여게는 돈독이올라 눈이식벌거케된 경마스군들이 말의선을 보는곳 이놈이 잘될가 저놈이 잘될리가。 눈이두려지라고 아래우를 훌터본 그들은 바로말과 다단한 약속이나한듯이 회심(會心)의 미소를 띄우고는 발길을돌려 루표구멍을 차저들간다。

말일곱마리에 구멍도일곱구멍 한구멍에 천여명식 루표를하것마는 그래도 저혼자 알어마칠것가티 남어 보기무섭게 슬금 루표지를 구멍에 집어너코는 도라선다。

▼……▲

저미소가 언제까지 견될것인가 보자하고 허공을 처다보고 실진한 사람처럼 싱글벙글우스면서 말뛰는 〃루렛〃열호로거롬을 밥비하는 양복쟁이 친구 한명을 기자는 따라섯다。「살찐말」들은 소타드선에 느러섯다。 붉은옷 푸른옷으로 공작(孔雀)처럼꾸민 그야말로 가을의〃기사〃(騎士)들은 말꼽비를 쥐고 「살찐말」들잔등에 업드렷다。 좌우공기는 폭발할듯이 긴장한중에 진령(振鈴)은 우렷다。 「살찐말」들의일제출발 아니일제사격이다。

악가 그친구는 납뜻그려운것도이저버리고 오호(五號)〃야나기〃만 소리소리처 부른다。

그 친구뿐만 아니다。 녀자고 남자고 늙은이 젊은이 할것업시 미친사람 짝 그대로 목울 느림대로 느리고 아우성을 친다。

오호(五號) 「야나긴」는 끄트로 둘재가되여 팔에 드러왓다。

오분전에 싱글 벙글 하든 겨레서는 그친구의 얼굴에는 그만 금풍이소실해진다。

이것이 하늘은 놉고 살찐말들이 뛰노는 느진 가을 어느날 경마장 한구통이의 표정이다。

—계속—

北國의清津市內에 無宿勞働者千名

天幕十個에五百名收容豫定

嚴冬압두고重大問題

【清津】 엄동을 압두고도 아즉 집과먹을것을 구하지못하고 처마밋과 길가에서 창천을 천정삼고 로숙(露宿)하는 로동자(勞働者)가 경긔조키로 유명한 청진시내에 천명에 갓가운수효에 달하야 장차 그들의 과동책이 큰문제중에잇다

일즉이 청진서(清津署)의 알선으로 조직되야 로동자의 감독과보호를 겸한긔관인 로액사(勞掖社)에서는 그들의 과동책으로천막(天幕)열개를 구입하야어항(漁港)근처의 공지에 천막존을건설하기로 하여오든중 이지음 그중두개가 완성되엿슴으로한개의 천막에 오십명식 우선두개에 백명의 로동자를 수용하게되엿다한다 아프로 천막전부가 도착되는대로 약오백명의 대세대가 천막에서 엄동설한을 거듭하게되리라한다

朝鮮體育會第十七回 綜合競技大會

各部의申請期日迫頭

爽凉한 스포츠의 가을을 마지하야 열릴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七回 全朝鮮綜合競技大會는 來十月三日 正午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陸上競技로부터 開幕되여 籠球 野球 柔道 力技 럭비 蹴球 庭球 卓球 씨름 拳鬪 劍道等의 十二種目競技를 다음과가튼 日程으로 擧行할터인데 同大會가 臨迫함을따라 京鄕各地에서 主催側으로 續續申請이 逐至하고잇는바 各種大會의 日時及 申請期間은 다음과갓다。

▲陸上競技=十月三日正午 京城運動場 申請期日 九月三十日

▲籠球=十月七、八、九、十(四日間)中央基督敎青年會後庭 申請期日十月二日午後五時까지

▲씨름=十月十七日午前十時 朝鮮日報社大講堂 申請期日十月十二日午後五時

▲卓球=十月十一日午前十時 府民館中講堂 申請期日十月五日午後五時

▲拳鬪=十月十六、七、八日(三日間)午後六時 朝鮮日報社大講堂 申請期日十月十日午後五時

▲劍道=十月二十三日午後六時 朝鮮日報社大講堂 申請期日十月十六日午後五時

▲柔道=十月二十四日午後一時朝鮮日報社大講堂 申請期日十月十六日午後五時

▲野球=十月二十四日午後一時京城球場 申請期日十月二十日午後五時

▲庭球=十月二十五日午前十時京城運動場코-트 申請期日十月二十日午後五時

▲力技=十月二十五日午後六時朝鮮日報社大講堂 申請期日十月二十日午後五時

▲럭비=十月三十一日 午前十時 京城運動場 申請期日十月二十六日午後五時

▲蹴球=十一月一、二、三日(三日間)京城運動場 申請期日十月二十六日午後五時

實業庭球第十日 京城府廳得勝

遞信、總督府는未盡

京城實業庭球리-그戰 第十日은 二十九日午後五時부터 殖銀『코-트』에서는 專賣對府廳戰이열리여 府廳軍이勝捷하엿스며 朝銀『코-트』에서는 全勝率를가지고잇는總督府와 殖銀軍에게惜敗한 遞信軍과의 白熱戰이열리엿스나 第三『라운드』에드러가 日沒로因하야 中止하엿다

【總府】 ? 【遞信】

(第一라운드)

○ (和栗 柳太龍) 4…1 (松田 李鍾朝) ×

× (春日 盛昌) 1…4 (朴鍾輝 大友) ○

○ (熊野 李應麟) 4…2 (宮崎 孫觀星) ×

(第二라운드)

× (和栗 柳太龍) 2…4 (朴鍾輝 大友) ○

(第三라운드)

(熊野 李應麟) ? (朴鍾輝 大友)

【府廳】 【專賣】

(第一라운드)

× (河東植 赤松) 1…4 (白潤輔 朴寅世) ○

○ (洪承杰 李鳳基) 4…1 (黃基成 淺野) ×

○ (張南星 申暖徹) 4…1 (全永俊 梁在景) ×

(第二라운드)

○ (洪承杰 李鳳基) 4…1 (白潤輔 朴寅世) ×

(張南星 申暖徹) 不戰組

實業庭球10日現在

順位		總府	遞信	殖銀	鐵道	專賣	府廳	商銀	朝銀	比率
1	總府	⋮		○	○		○	○	○	1.000
2	遞信		⋮	●		○			○	0.667
3	殖銀	●	○	⋮		●	○	○	○	0.666
4	鐵道	●			⋮	●	○	○	○	0.600
5	專賣		●	○	○	⋮	●			0.500
5	府廳	●		●	●	○	⋮	○	○	0.500
6	商銀	●		●	●		●	⋮		0.000
6	朝銀	●	●	●	●		●		⋮	0.000

【○은勝●은敗】

滿俱4 府廳1

奉天滿鐵俱樂部對 京城府廳戰은 二十九日午後四時三分부터 京城球場에서 柳(球)白石、橋口、津島(壘)四氏審判下에 滿俱先攻으로 開始된바 結局四對一로奉天滿俱得勝하엿다

滿俱 100010200 4
府廳 000010000 1

◇投捕(滿俱)柏木—長野、今市(府廳)安藤、松元—崔仲乙

올림픽代表팀 上海서歡迎中止

伯林올림픽에 出征하엿든 日本代表選手團은 二十八日에歐本十月三日엔陸上代表 十月十日에는 水上代表로나노아 歸國途次上海에들릴豫定인데 이選手團을 마지하야 上海居留日本人들은歡迎會와模範競技會를 開催할計畫을세우고 準備中이든바 時局의急角度變轉으로因하야 全部中止하기로되엿다한다

京城帝大豫科運動會

京城帝大豫科의 第十二回陸上運動會는 來十月四日午前九時부터 淸涼町同校庭에서 擧行하는터인데 假裝行列을 비롯하야 興味津津한 順序가만타고한다

朝鐵野球團得勝

新京遠征中에잇는 朝鐵野球團은 二十六日新京에서 滿鐵俱樂部와 對戰하야 五對三으로得勝하엿다

運動界人事

▲朱興根氏(高麗陸上競技協會副會長)와 洪淳玉孃의 結婚式은 十月一日午後一時부터長谷川町 YMCA에서擧行

今日의運動

▲庭球=秋期實業리-그第十一日 午後五時 朝銀對專賣(朝銀코-트) 鐵道對遞信(殖銀코-트)

御推奬
醫學博士 金河樫先生
醫學博士 朴昌薰先生
醫學博士 申弼浩先生
醫學博士 任明宰先生
醫學博士 吳一承先生
醫學博士 金東益先生
醫學博士 金重華先生

때는 初秋…………
健康恢復의好季節이왓슴니다
더위와 장마로 虛弱하야진 身體의健康을 恢復함에는 健康의要素인 靈藥「ロクミン」을 服用하십에 잇슬뿐입니다

이러한분은服用하시요
病後衰弱한人
手足厥冷한人
心身虛弱한人
腎氣不足한人
不眠症이有한人
神經衰弱한人
倦怠感이有한人
精力減退한人

効能
▲早老 ▲神經衰弱 ▲老衰防止 ▲肺結核 ▲倦怠感 ▲肺尖가다루 ▲盜汗 ▲精力減退 ▲食慾不振 ▲貧血

—(藥價)—
五〇瓦入 金二圓也

京城禮智町
發賣元 天一藥房

雙虹舞 【2】

方仁根 作
金奎澤 畵

虫先生 (二)

광훈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이보통학교선생으로 온지가 삼년밖에 아니되엿다. 선생중에나희도 제일적고 또혼인도 아니하엿스며 성질이 온용한데다가 또 굿세인데가 잇서서 선생간 학생간 횡두루 평판이 조화다 학생들과도 동무처럼 작란하고 놀다가도 교실에들어가면 몹시 엄하게 굴엇다. 큰학생들이 처음에는 어린선생이라고 깔보앗스나 그인격이라든지 또 학문이라든지 도저한고로 점점추앙하여 이학교에는 업지못할보배선생이되엿다. 특히 그는 리과(理科)를 잘가르친다고 이름이 낫다.

그의 괴벽한것은 밤낫버러지를 주을르고잇는것이다. 다른선생들은 놀고이야기하는데도 그는언제나 버러지잡는 그릇을가지고다니며 버러지를잡어 표본을맨들고 기숙하고잇는집에가서도 늘버러지들을가지고 연구하는것이엇다 그리고 틈틈히 곤충학(昆虫學)에관한책을 읽는것으로 일삼엇다. 그러기에 이촌에서는 광훈을 충선생(虫先生)이라고 별명을지여 불럿다. 어떤사람은 그것을 놀리는 것으로 부르고 어떤사람은 존경해서도 부르나 좌우간 충선생이란것은 그다지 명예스러운 이름은 못되엇다. 그러나 광훈은 누가 아무런말을하거나 드른척도 하지안코 버러지 연구에맛처버리엇다.

그날도 하학을하고 학생들이 실습하는 바테가서 땅을파고콩씨도뿌리고 옥식씨도 뿌라고야단인데 광훈은 학교뒤에잇는연못가으로 다니며 버러지를잡느라고 눈이 벌갯다. 그는 포충망을 휘둘르다가 안경이 코스잔등으로 미끄러지면 한손으로올려며 연못가를 뻥뻥돌앗다. 그리고는 또 호미로 땅을 파보기도 하고 버러지를 잡어서는 병에 너키도 하엿다.

「아이 깜작아! 난 누구시라구 광선생이세요」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엇다. 광훈은 힐긋 돌아보고

「네ー」하는 싱겁고 무뚝뚝한 대답을 하엿다.

「또 버러지산양이세요」

「네」

「얼마나 잡으섯서요 어디좀봐요」

광훈은 버러지가 우울거리는 병을 내보엿다.

「아이그머니! 징그러워라」하고 그녀자는 두손바닥을 머리좌우에 벌리며 얼굴을 찡그리엇다

그는 경주(慶珠)라는 여선생으로 광훈을 몹시 조화하면서도 이 버러지작란하는것만은실혀하엿다. 경주는 그러케 미인은 아니지마는 귀염성잇는 녀자이어서 광훈도 조화하엿다.

「글세 그버러지 작난좀인제그만두서요」

「겨울동안 못하다가 봄이되여나는 한참신이나서 시작하는데 그만둬요」

「참말 인제 봄부터 여름까지 선생님 시절을 맛낫습니다 그려」

「암만요」

「그게 그러케 재미잇스세요」

「재미잇구말구요 취미를 드리면 미친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버러지를 발견 할때의 기쁨이란 말로 할수업구요 그생김생김의 독특한게라든지 그들의 생활이라든지 연구할수록취미가 진진합니다」

「그래도 저는 보기만해도 징그러운데 떡주물르듯시하시니 참말 선생님은 좀 헨징 (이상한사람)이서요」하고 경주는 방긋우섯다. 광훈도 빙그레우섯다.

경주는 더 이야기하고 실흐나 누가 보고 주목할가봐 얼른돌아서며

「만히 잡으서요」 하고 가버리엇다.

광훈은 한참후에 사무실로 들어가서 잡은버러지들을 알콜병에담그기도하고 표본책에 꼿기도한뒤에 책보를끼고 학교문을 나섯다.

광훈은 장터를지나 내를건너서 박길을 걸어 산으로 올러갓다. 동내집집에는 저녁짓는푸른연기가 무럭무럭 피여오르고 해는 설봉산뒤로 넘어갓다. 그는 산기슭 과일밧을지나서 개와집으로 들어갓다. 그것은 박면장의 집이요 광훈은 이집사랑채에 기숙을하고 잇는것이엿다. 광훈을보고 검둥이가달아와서 꼬리를치며 머리를 흔들고 반가히 마저주엇다. 광훈은 개의머리를 쓰다듬어주엇다.

純國産
㋐のガム
㋐のチウインガム를 씹으시면
口臭를除去하고 齒牙의淸掃作用을하고 咀嚼에依해서唾液의分泌를促進하고 消化를도으며 씹어서齒齦을 健全케한다
十ケ入 一函 五錢
五ケ入!! 二錢
お子様向 一錢
名古屋市中區北一色町深井
合名會社 伊藤製菓所
Maruima kokusan gamu

文具卸商
株式會社 彰文堂

朴家粉化粧品
박가분화장품
本舖 京城蓮池町二六 電話光化門三三〇
京城鍾路四丁目五 綢緞綿布都散賣商
株式會社 朴承稷商店 電話光五七一七番

最新流行形
秋季大特賣
品質十個年 絕對安全!!
品物お氣に召さぬ時は交換自由!
精工舍製クロム16型懷中
1 七石(市價九圓品)特價三・五〇
2 七石(市價十一圓品)〃四・三〇
3 七石(市價十三圓品)〃五・九〇
4 七石(市價十六圓品)〃七・八〇
5 七石(市價十九圓品)〃九・四〇
瑞西製16型クロム懷中
イ 七石(市價六圓品)特價二・六〇
ロ 七石(市價十二圓品)〃三・七〇
ハ 七石(市價十七圓品)〃四・六〇
ニ 七石(市價廿三圓品)〃六・七〇
ホ 十五石(市價廿六圓品)〃七・九〇
ヘ 十五石(市價廿七圓品)〃八・四〇
瑞西製11型クロム腕卷
8 七石(市價九圓品)特價二・七〇
9 七石(市價十四圓品)〃五・七〇
◎ウオルサム16型懷中
A 七石(市價二十圓品)〃七・五〇
B 七石(市價廿七圓品)〃九・三〇
가다로구청구는절수이전보내시오
●前金註文ハ送料不要●代引ハ每個送料四十錢分郵便切手ヲ送附下サイ送料前納者以外代引絕對謝絕
東京淺草松葉町二二 振替東京六六八五七 天賞堂

濕布에 エキホス 에기호스
包裝 一〇〇瓦 二五〇瓦 五〇〇瓦 二瓩
有名藥店에는반드시「에기호스」의賣品이잇다.
注意 (近日類似品이多數히잇사오니購入時에반드시「에기호스」를確認하시압소)

手提金庫界의大革命到來
自動開蓋付器警報裝置
永年의研究에依하야 理想的大發明은完成하엿다 보라! 手提金庫의王! 最高級網鐵製의 最新型弊店專賣品實物宣傳을爲하야 特賣를斷行한다 特賣期間中實費提供
使用法 (1)前部의핸들을右로돌리면開蓋함(2)暗號文字마치는우(又)各指定文字에合함(3)鍵穴을左로돌리면쇠걸리는것이右로돌리면열린다(4)警鈴轉向鈕裝置ㅁㅋ〇ㄷ은열때는소리가나고ㅋㄷ〇ㄱ은열때와移動하는境遇는連續하야소리만난다(5)ㅋ지 ... (6)貨投入口

種類及寸法	縱幅	橫幅	高サ	重量	定價	特價
五〇〇番	一・二尺	八・二尺	五・三尺	一・五貫	三〇圓	一〇・〇〇
一〇〇番	同	同	同	同	二八圓	八・五〇

送料一圓二十五錢은注文高에加算(鐵道는實費)振替口가小爲替를바라며郵便日附를記入할것特約店應募規定書請求는切手五錢要
型錄進呈・特約店募集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丁目 振替口座東京三三五〇三番 クラウン工業所

陽氣업서 恨歎하시는 분이여!
貴下를 爲하야 補精腎氣强壯에 神奇神祕한 天惠的靈効를 가진
樺太廳官營捕獲
眞品海狗腎을販賣함
本品은 北洋寒帶樺太의 無人島產을 樺太廳에서 官營으로 捕獲하야 同廳水產物檢査所에서 嚴正檢査證明한 世界的高貴의眞品이라 一服하시면 그神効함을 能히 鑑量하실것이외다! 求服을 願하시는분은 說明書請求하시면 無料進呈함
發賣元 釜山府草梁町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長一二一一九番 振替釜山七九一二番

朝鮮日報社 釜山支局 長電話釜山二八九七番

メリヤス雜貨格安品
弊店은普通問屋과달너서各製造家스로크品端物、二等品을一手引受하야安價로送付하여드림。
店名捺印者에限 商品目錄進呈
莫大小、雜貨、各種 二等品 端物專門卸
名古屋市西區則武町牛島 振替名古屋二三九四七番
梅村新太郎商店

案內書『養鷄月報』無代進呈
養鷄黃金時代到來!!
着手는只今곳
잘나고 잘자라는 初生雛
スミス式立體孵卵器十六臺設備 種鷄七萬餘羽雛年產五百餘萬羽
採卵用 中雛・若雛養成豐富
名古屋市南區熱田局區內
愛知家禽株式會社
振替名古屋五四六六番・電話南六三二四番

●頭痛에 ノーシン 노ー신
効果는期待以上! 더구나 胃腸이안상하는理想的頭痛藥●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고기가 없어도 맛은 一等!
전에는지지미고찌개고 고기를느어야맛이나는줄아럿지만지금은 아지노모도를 치면 고기는것이상으로맛은一等입니다 그리고경제적이지오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朝鮮에도마츰내 產業統制法實施
但 當分間은 洋灰에만 適用
總督府方針逐決定

重要產業統制法 朝鮮施行의是非問題는 既報와如히 總督府首腦部에서 過般來 愼重硏究를進行하고 잇든바 結局 現在 軍要輸出品 檢查規則의 先例도잇서 問題는 그運用如何에잇다는 結論에 到達하야 重要產業統制法의 朝鮮施行에 大體 意見의 一致를보앗다

그런데 同法의 施行에 當하야서는 總督府는

一、總督府가 어데까지든지 產業의指定權을 把持할
一、當分間 洋灰業以外를 指定치안흘

의 二項을 前提條件으로 充分히 이에關하야 日本內地와了解를圖한후 勅令으로 施行하기로되어 殖產局에서 立案에 着手하기로되엇다

緬羊增殖計畫 方針을變更
十二年度부터 着手

緬羊增殖計畫의 擴充은 農林局의 輸入年一萬頭計畫이 財務局에서 削減되어 農林、財務兩局에서 折衝을進行中이든바 同計畫이 國策的重要性에 鑑하야 其後財務局에서도 如左히 讓步하야 新增產目標인 十五年五十萬頭計畫에 十二年度부터 着手하기로 되엇다

即 農林局의 原案은 十二年度以降 年一萬頭輸入을 四個年繼續하고 其後는 朝鮮內增殖에 依하야 十五年五十萬頭의 計畫이든바 財務局의財源的立場도考慮하야十二年度에는 六千頭를 輸入 現計畫은 二千五百頭式)하면 輸入期間을延長하는것이다 右豫算으로 約三十二萬圓을增額할豫定이다

六千頭의 新輸入은 濠洲 뉴질랜드兩地로부터 購入할 豫定으로 그農家普及은 드듸어 南朝鮮一帶에도 及할려이다

慶北農本會의 風水災害對策

【大邱】慶北農本會에서는 去二十四日 風水害對策에關하야 左記事項과如히 協議하엿다고한다

가、直接救濟法

1、生產의給與 櫓以의製產其他의副業을 獎勵하는同時에 資金의 援助를할것 道當局에서斡旋하야 原料의廉價購入하고 製品을 農會에서 共販하는等 種種特別의 援助를 講究할것

2土地改良工事의促進

災害復舊工事는 勿論 旣定計畫工事를 施行하야 其資金을撤布할것

3、官營工事의促進

砂防工事、鐵道工事의 諸工事를 可及的 速히 施行하도록주선할것

4、食糧의貸付를 適當한時期에 實施할것

나、間接救濟法

1、麥作의督勵

作付面積의增加、早期播種의 奬勵等에依하야 食糧의增加를 圖할것

2、自給肥料의造成

災害緒는 燃料에 使用치안코 堆肥의 原料로하야 明年度의金肥購入資金 節約할것

三種水產製品의 二重檢查를撤廢

水產製品의 輸出에는 從前 鰮罐詰을 除하야 日本內地와朝鮮間에 二重檢查를 行하고잇든 外 朝鮮의 水產檢查를 日本內地와 同規格에依하야 嚴重施行하기로된結果 鯖水煮 鯖味付及 도마도써-진의 三種에 對하야 九月二十八日以降 日本內地와朝鮮間의 二重檢查를 撤廢하기로 되어 그代身에農林省의 認證을 朝鮮內檢查의 合格과함께 貼仕하기로되엇다

鰮群漸次로南進
漁獲量豊富·魚價高騰으로
咸南北鰮景氣로豊盛

東海岸漁業의 大宗인 鰮魚는 春季以來 不漁를 傳하던바 秋季의 最盛漁期인 十月을 압두고 九月中에 突然 大魚群의襲來로 咸北咸南은 昨今 例年에 업는 鰮魚景氣를 示現하고잇다

即 鰮魚群은 八月까지 咸北北端 一部海岸에만 廻游하고잇든것이 九月中에는 咸南北道堺海岸에까지 大量으로 襲來하야 意外의豊獲을 보게되엇는데 今年은特히 魚價가 昨年보다 四割餘의 高價로 每樽三圓七十錢內外인데에 最近까지에 巾着網船은 十五萬圓의 收得이잇섯다는等 魚價로나 魚獲量으로나 昨年보다 成績이 良好할모양이다 昨年에는 魚獲高만이 一千二百餘萬圓으로 製油高를 合하면 三千三百餘萬圓이든것이 今年은四千萬圓을突破케 되리라는것이다 兼하야 今年은 漁網이 昨年의 百五十六統에對하야 今年은 二百四統으로 昨今에 咸北淸津附近에는七十統 咸南北部에는 百統가가히 모히어잇서 沿岸漁村은 鰮魚景氣를 보하고잇는터이데 十月中은 咸南에서 江原道로 南下하면서 鰮魚景氣는 一層盛況을呈할모양이다

東海岸線促進陳情

今回의 風水害로 其被害가 가장 悲慘한 東海岸線沿線地方諸團體로부터 罹災民이 飢死線上에 彷徨하는 狀態에鑑하야 救濟策으로서 東海岸線의 促進을 特히 配慮해달라고 鐵道局에陳情書가 到着하얏다

龜城郡서稗拔獎勵

【龜城】龜城郡農會에서는 龜城五峰兩水利組合 共同主催로 今年부터 처試驗인 稗拔奬勵를計畫하여 그優秀部落을 表彰하기로하고 去十一日 職員總出動으로 그成績을 考査한바 左記와如히 優良部落으로 表彰키로 하엿다。

▲一等 方峴面韓山洞部落 ▲二等 五峰面仁興洞部落 ▲三等 方峴面秀山洞部落 館西面高龍洞部落

治水뿐아니라 治山策徹底協議
治山治水調查會의討議方針

去番 風水禍의 慘憺한 狀驗에依하야 治山治水의 根本對策을 再檢討할 治水調查委員會組織에 對하야서는 內務局主管下에 過般來 愼重硏究를 進行하고잇든바 이지음 右委員會構成의 原案이 成立되엇다 이는大體 委員을 約三十名으로하고이에는 日本內地方面의 治水權威者도 加하고 朝鮮內關係도 官民의 權威者를 網羅할 意向으로 政務總監의 海州出張으로부터의 歸任을 기다려 委員의委囑을 行할터이다

그런데 이번 治水對策의協議는 單只 治水問題에 局限치안코 根本的으로

一、治山事業의 今後의 根本對策
一、林地利用과 治山治水의 關聯
一、氣象學的硏究
一、將來의 水力發力開發關係

等의 各般에亘하야 協議를 行할 豫定으로 第一回 委員會는 十月下旬 開催할豫定이라한다

桑田對策轉換
肥培管理에注力
段當收量을增加方針

產繭 百萬石計畫은 그後 財源關係로 桑田擴充이 如意치못하고 잇는데 目下 桑田擴張補助 三萬六千圓도 來十二年度로써못나므로 總督府 養蠶係에서는十二年度以降 桑田對策을 轉向하야 新規의 桑田擴張보다도 主力을 桑田의 肥培管理改善에두기로되엇다 即朝鮮內에서는 桑田一段步에 對하야 還曆一枚가량 飼育하는데 日本內地에서도 三枚以上을 飼育하는 實例로보아서 朝鮮內의 桑田肥培管理의 餘地가 만타하야 今後는 新規桑園의 擴張보다는 旣成桑田의 肥培管理에·主力하야 段當收量의 增加에 努力한다고한다 따라 肥培管理改善을 爲하야 適切한補助策도考慮하고잇다한다

全朝鮮機業者大會 十月大邱에서開催

【大邱】大邱府主催로 織物展覽會의 會期中 全朝鮮機業者大會를 十月二十四日正午부터 大邱公會堂大講堂에서開催한다고한다

鐵山金組獨立決議

【江西】江西郡鐵山金融組合에서는 지난二十一日午前十時부터當組合會議室에서 組合員臨時總會를 開催하고 理事로부터 今般에 江西金融組合鐵山支所어든것이 鐵山金融組合으로 獨立되엿다는 人事가 잇슨後 獨立經營이 必要하나 그러치안호면 支所로하는것이 어떠냐하는데對하야 組合員이 討議한結果 滿場一致로 獨立하자는것을 可決하얏다한다

世界綿業趨勢
紡績操短大體減少
綿花消費繼續增加

만체스타-의 萬國紡織聯合會에서는 七月末에끗난一九三五—六年度下半期의 世界綿業統計를 發表하얏다 이제 一九三五—六年度 全體에 對하야 特記할 點을 보면

一、棉花消費에잇서서는 米棉의 消費가 九分가량 回復을본것이 눈에띄인다 前年度의 米棉의 消費는 實로 二割의 激減이엇다 一方 印棉 及 埃及棉의 消費는 今年度에는 도리혀 減少를보앗다 그러나 世界棉의 消費는 增加의 趨勢에잇다

그리고 國別消費高를보면 英、米、佛、蘇聯、제코、印度等이 增加하얏는데 日本及 中國의棉花消費가 減少되것은 注目되는바이다

一、이리하야 世界의 棉花消費高는 獨伊를包含하지안흣음에도 不拘하고繼增을 示하야一九二八—九年度來의 多量에올릿는데 一方年度末의 世界紡績棉花의 所持도 漸減을示하고잇다 이棉花所持의減少는 米棉과 埃及棉、就中前者의 所持減少에依하는것으로 그는一面 米棉의 消費回復과 供給減少를 말하는것이다

三、世界의 紡機据付數를보면 歐米에잇서서는 紡機의 整理가 繼續進行되고 一方 亞細亞에잇서서는 依然增錘의 趨勢에잇다 即 過去一個年間에 世界紡機据付數는 約一百萬錘가량이減少하얏는데 亞細亞는約百三十萬錘增加를 示하고 잇다 米國은 約二百萬錘의 各其減少요 一方 日本은約九十萬리 中國은約二十萬錘 印度는約十萬錘를 增加하얏다

四、主要國의 紡績操短週數도 左와如히 大體 繼續減少하고잇다 (一週四十八時間으로計算)

	自今年二月至今年七月	自昨年八月至今年一月	自昨年二月至昨年七月
英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佛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제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白耳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墺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紡績棉花消費 (單位千俵)

	一九三五—六年度	一九三四—五年度	一九三三—四年度
世界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印度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埃及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國別			
米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印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英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蘇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佛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제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獨逸	△	△	[illegible]
伊太利	△	[illegible]	[illegible]

▲紡績棉花所持 (單位千俵)

	一九三六年七月末	一九三五年七月末	一九三四年七月末
世界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埃及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印度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國別			
印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佛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蘇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英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제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獨逸	△	△	[illegible]
伊太利	△	[illegible]	[illegible]

▲紡機据付數 (單位千錘)

	一九三六年七月末	一九三五年七月末	一九三四年七月末
世界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英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獨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佛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蘇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印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伊太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제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註] ▲印은 報告가업는것、据付紡機數中 獨逸、伊太利、蘇聯은 報告가업기때문에 獨逸은 一九三四年九月末現在 伊太利는 一九三五年七月末現在 蘇聯은 推算을 揭載하얏다

各地秋繭共販

▲靑陽 靑陽郡의 秋蠶은支難한 氣候으로 因하야 一時不良하엿섯스나 近年 養蠶家의技術發達로 比較的 良好한 成績을 示하엿스며 目下共販中의繭價는 如左하다

▲特上三圓三十六錢 ▲特等三圓十四錢 ▲一等二圓八十六錢 ▲二等二圓五十七錢 ▲三等二圓二十九錢 ▲四等二圓 ▲等外一圓七十一錢

▲善山 善山郡農會에서는 去二十三日부터 秋繭共同販賣를 善山面鳳尾面長川面三個所에서開始하얏는바 二十八日 共同販賣價格은 다음과如하며 繭質이良好함으로 大部分優等이라한다

▲優等三圓三十七錢 ▲特等三圓十五圓 ▲一等二圓八十六錢 ▲二等二圓五十七錢 ▲三等二圓二十八錢

問 小生은 朝鮮白紙를 數萬卷蒐集하엿는데 販路와 價格이 맛지안허서 處理에 困難합니다 至今 當地에서는 百卷에 四十圓가량하는데 이價格으로는 元價도 되지못합니다 買入所를 下敎하시오 (鐵北 一讀者)

答 當地販賣價는 商店에따라 各異하오니 左記商店에 專接 照會하야보시오

京城府南一門通一丁目 永仁昌紙物舖
同 鍾路二丁目 鍾南紙物舖
日本內地人用 屛風部賣店
京城府本町三丁目 西川表具店
同永樂町二丁目 荒木朴堂

日用商品市況

開城人蔘公定價格 (九月二十四日調定)

等級 \ 片級	一〇	一五	二〇	三〇	四〇	五〇	六〇	八〇	一〇〇	小片	無片	大尾	大中尾	中尾	皮尾	細尾
特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壹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貳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參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等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漢藥 (京城卄八日現在)

開城人蔘(一斤) 一等 二等
錦山人蔘(一匣) 一等 二等 (以下單位斤)

桔梗 知母 天麻 白朮 狗脊 遠志 玄參 丹參 白芷 胡黃連 藥丸 前胡 羌活 升麻 白鮮皮 貝母 細辛 白芷(唐)
黃芪 黃精 赤芍 蒼朮 巴戟天 仙茅 地楡 紫草 黃連 黃芩 柴胡 防風 獨活 苦參 延胡 龍膽 川芎(土) 白芍藥

良薑 砂仁 肉豆久 鬱金 香附 澤蘭 荊芥 紫蘇葉 茵陳 胡巴 麻黃 燈草 牛膝 決明子 連翹 大黃 大戟 南星 生兎絲子 白扁豆 使君子 天花粉 天門冬 通草 忍冬 桂皮 辛夷 丁香
白豆蔻 益知仁 破古紙 莪朮 藿香 香薷 薄荷 蘇子 益母草 蒼耳子 木賊 生地黃 白芙花 車前子 覆盆子 白附子 附子 半夏 沙蔘 五味子 瓜蔞仁 萬根 白何首烏 木通 金銀花 肉桂 桂枝 沈香 吳茱萸

龍腦梅八 黃柏 杜冲 枳實 梔子 金櫻子 五加皮 牧丹(土) 白茯苓 上白伏神 琥珀 竹葉 竹茹 乾薑(土) 龍眼肉 神曲 五倍子 鹿角膠 朱砂 石膏 硫黃 甘草 從蓉 熟地 澤瀉 枳殼 鹿茸 熊膽 麝香 竹瀝 檳榔

=天一藥房調査=

▲秋繭取引市勢

月日	道	所	高價	低價	平均	數量
[illegible]	[illegible]	昌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居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信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昌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城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鏡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谷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信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鳳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居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井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端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順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寧遠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孟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鳳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谷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信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燕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牙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端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光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鏡城(朱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順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孟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晉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昌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水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順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孟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寧遠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鳳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谷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完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錦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井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文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端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鏡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鏡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鏡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淸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沃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光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牙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燕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端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英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寧遠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居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沃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淸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城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錦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井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完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文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端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錦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牙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昏 (191)
韓雪野 作 安夕影 畫

그전후 (三)

「복술아………」

분이의 소리엇다。

「응、너、벌서 기념먹구 오니?」

하고 복술은 미다지를 열고 머리를 내밀며 말하엿다。

「그럼、넌、여태 안먹엇니?」

하고 분이가 얼른 나가자고 말하라는것을 복술은 곳 말을 막으며、

「애、너 어듸로 가리니?」

하고 눈을 끔적하엿다。

분이는 잠시 무슨 영문을 몰라서 방안을 쭈빗이 듸려다보다가、정님이를 려순으로만 알고、

「언니 기념 잡수섯소?」

하고 물엇다

「언넌 산보 나갓다」

하고 복술은 미다지를 좁려밀며

「애、정님이가 왓다。넌 좀안드려오란?」

하고 들어오기를 청하여 눈짓으로 먼저 가라는 표시를하엿다。

「정님이가 왓서?」

하고 분이가 말할때에 정님이가 내다보며

「분이냐?좀 들어오렴으나」

하고 오래간만에 만나는 반가움을 뵈엿다。

「아니、난、좀 볼일이 잇서서……그런데 너、무슨 바람이 부럿니?」

하고 분이도 우서주엇다、그러나 평소에 못마땅히 생각하는맘이 잇는차에 평생 오지안튼 그가 공교히 긴한 일이잇서서 나가려는무릅에 자발업시 냉큼 뛰어드듯해서 속으로는 솔며시 화가낫다。요사스런것어란 똑、남의일을 방해할짓만해……하는 생각도 낫다。

「애、정님이가 오늘 회살그만뒷다는구나」…복술의말。

「그만두다니……웨?」

하고 분이는 놀라듯 정님의 얼굴을 보앗스나 아직도 조흔나트로 돌아와지지안헛다。

「실흔니까 그만뒷지……」

분이의 태도가 지나치게 동정을 일흔것가래서 정님은 그이상 더설명을 가하려하지안헛다。

「실킨 웨 실어? 녜공일도합나니……」

하고 분이가 여전히 지나가는 행인의 일가리 심상히 말하는것을 복술은、

「애 그러거아니라다……애매한 허물을 뒤집어쓰고 나와잔다」

하고 중재나 부치듯이 정님의사정을、대강 설명해주엇다。

「그런관이줄 알면서……애초에 가길 잘못이지」

하고 분이는 복술이다려 얼른 정님을 보내버리고 곳오라는 눈짓을하고

「애 난 볼일이 잇서서 가야겟다……! 정님아 잘놀다 가거라」

하고 총총히 나가라하엿다。

「애 너또조데로 가는구나!」

복술이는 위정 이러케 놀려주엇다。

「오냐 네신랑 선보러간다!」

분이도 구지이 맛도록 이런케 바다주엇다。

「애 그사람 집에 얼매도랑 가지두마라!」

「망할년! 그사람이다 뭐냐? 아즈머니집에 제사가 잇서서 가는데!」

「그런데 참 애 너 려순언니 부락은 어떠케 됏니?」

복술은 이러케 혓소리를 하며 분이에게로 쪼차나가서 나즈막하게

「너、집、똑똑히 알겟니?」

하고 물엇다

「그래 안다」

「그러면 먼저 가거라。나도곳 갈테데……정님이한테 무슨 돌을만한 소식이 만흔모양이니 잘 들어가지고 가마……주의씨한테 그러케 일러다구」

하고 말하연후에 복술은 정님이가 듯도록 일부러 큰소리로

「너 내일은 한테해야 한다。안하면 알지……」

하고 놉게 말하엿다。

「그래라 너조하하는 출(출)이나 하나 갓다주마」

하고 분이도 위정 크게 말하며 박그로 나가버렷다。

복술은 아주 심상한체루 미며 다시 방으로 들어왓다。

정님은 인차 서류를 끄집어내노코 벙긋이 우스며——그러나 어데지모르게 불안과 공포를 가진、침착지못한 태도로、

「이걸、짐정이 빨가쓰노라고여간 시일이 걸리지 안헛단다。발서 그만두엇슬건데 기왕이면 나도 좀 공부를 해줄 생각이 잇서서……」

하고 말한것을、서류내용에 대해서 배강배강 설명해주엇다。

정님의 말을 듯는동안도 그랫지만 다듯고나니 복술은 더욱 속이 죄여낫다。얼른 가보아야겟다는 생각뿐이엇다。

그러나 정님은 여래 이러나랴는 동정이 업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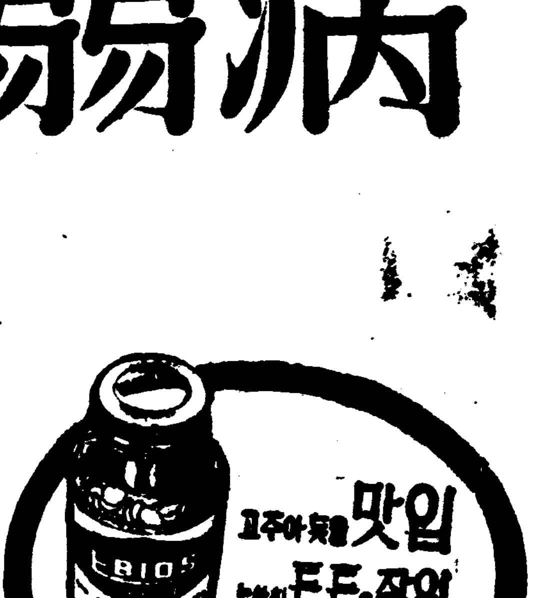
그길판에 바게서 독한 소리가 무중 들려왓다——

「복술이 잇소?」

두사람은 깜짝 놀랏다。

복술은 얼른 서류를 접어서 품……에넣어버렷다。

病弱體에는먼저 食慾을



병환으로 누어계신분에게 큰문제는 구미가업서저서 아무런 음식물도 잡숫지못하게되야 몸쇠약이 몹시 심하게되며 病도오래끌게되는것임니다

그럼으로 잡수시든약도 잘듯지안케되나니 무엇보다도 弱하게된 胃腸의 활동력을 바로잡아서 먹은음식물을 모도 살과피로되게하야 자기힘으로 몸을회복식혀야됨니다 이것은 사람몸에귀중한 영양소 비다민비가 不足된싸닭임으로 에비오스가 모도보충식혀줌니다

에비오스錠은 모든自然物중 가장 제일 純正한 진국인 麥酒酵母劑이오니 日本藥局方에도 麥酒酵母에 限한다는條文이 잇는것으로도 그얼마나 조흔것인가를 아실줄 밋숩니다

食慾減退(식욕감퇴) 便秘(변비) 消化不良(소화불량) 脚氣(각기) 乳兒綠便(유아록변) 下痢(설사) 自家中毒(자가중독)에

에비오스錠을 連服하시면 기력이업는 胃腸의 活動力이 다시곰민활케되야 먹은것이 곳消化되고 변통이 조화지며 음식물을 잘잡숫게되야 몸이곳 회복됨니다

五〇〇錠…一圓六十錢
一〇〇〇錠…四圓八十錢
그외粉末도잇숩니다
全道藥房에서販賣함

エビオス錠

馬越藥學博士創製
橋谷農學博士監製

삿보로·아사히·유니온 麥酒釀造元
大日本麥酒株式會社
東京·大阪 [illegible]邊商店

EB-K-44